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2년도 표어 ⊕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마5:13-16, 벰전2:11-12)

⊕ 행동지침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2.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인 : 박노철 발행: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세상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이끌어 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가족이 모여 함께 드리는 설날 예배

예 배 순 서 >

인도: 가족 중 어른

- 목 도 다함께
 - 성 시 시편 1편 1-3절 인도자
 - 찬 송 304장(통일 404장) 다함께
 - 기 도(또는 사도신경) 가족 중(다함께)
 - 성경봉독 이사야 43:1-7 인도자
- “1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3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 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4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5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 을 것이며 6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7 내 이름으로 불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 내가 지었고 그들 내가 만들었느니라”
- 메시지 “너는 내 것이라” 인도자
 - 찬 송 563장(통일 411장) 다함께
 - 주기도 다함께

너는 내 것이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 온가족이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 들에게 감동적으로 사랑을 고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 가족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랑 고백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째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예술작가들이 자신의 최고의 작품을 생명을 다해 아끼고 사랑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깊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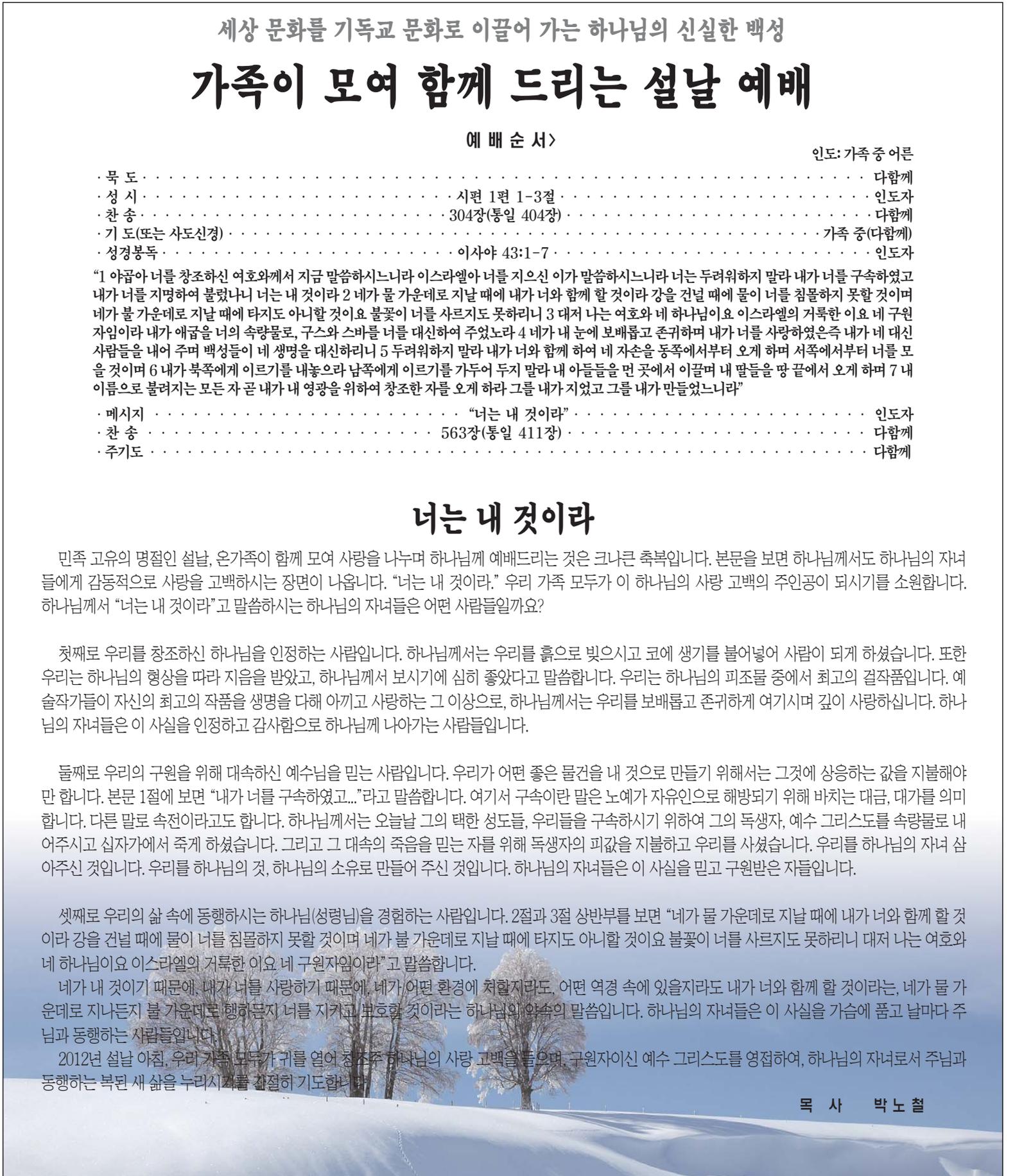
둘째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물건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해야 만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구속이란 말은 노예가 자유인으로 해방되기 위해 바치는 대금, 대가를 의미 합니다. 다른 말로 속전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그의 택한 성도들, 우리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물로 내 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속의 죽음을 믿는 자를 위해 독생자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 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성령님)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2절과 3절 상반부를 보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 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어떤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네가 물 가 운데로 지나든지 불 가운데로 행하든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실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주 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2012년 설날 아침, 우리 가족 모두가 귀를 열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들으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새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 사 박노철





- 설날 연휴 - 성경통독사경회

1월24일(화) 오전8시-오후5시
웨스트minster홀, 범위: 사도행전~요한계시록

우리 교회는 설날 연휴기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성경통독사경회로 모인다. 이번 성경통독사경회는 웨스트민스터홀에서 24일(화) 오전8시 개회예배를 드리고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읽는다. 신앙생활이 연약해지기 쉬운 명절에 온전히 주님을 위해 시간을 바치고, 생명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한다. 참여하실 분은 개역개정판 성경 찬송가, 색연필 그리고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오시면 된다. 회비(1만원)는 사무국에서 접수 받는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은혜 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한다.

노약자 심방

비록 육신은 연약하여졌으나



정수길 목사(6, 6, 7, 8교구 담당)

이중운 원로목사님께서서는 해마다 새해 첫 두 달간, 지난 한 해 교회에 나오지 못하신 노약자 심방을 하셨습니다. 이 귀한 전통에 따라 지난 1월 9일(월)부터 박노철 담임목사님께서 2012년도 노약자 심방을 시작하셨습니다.

노약자심방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것은, 연로하신 권사님과 집사님들께서 육신은 비록 쇠약해지고 때로는 사람을 못 알아보시기조차 하시지만, 하나님

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만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팔순을 훌쩍 넘기신 어떤 노권사님께서서는 시편 23편 말씀을 늘 암송하시며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종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시던 어떤 권사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담임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으신 후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도 하셨습니다.

삶의 곤고함으로 인해 인생의 공허함을 호소하시던 어떤 권사님은,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드시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평안이 총만케 될 것이라는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 위로와 소망을 찾기도 하셨습니다.

다락방 식구들이 모두 참여하고 위로하며 사랑을 나눔으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모습은 노약자심방의 또 다른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한국장로교총회 설립 100주년, 목사·장로 기도회

1월31일(화) 오후7시 - 서울교회 본당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는 1월31일(화) 오후7시 우리교회 본당에서 한국장로교총회설립100주년 목사·장로 기도회를 개최한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사 43:18-19)는 말씀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도회는 한국장로교총회설립

100주년을 맞아 한 교단 다체제 연합을 이루고, 한국교계와 사회에 희망을 주기 위함이며 장로교 지도자들인 목사, 장로 1200여명이 모일 예정이다. 이 날 설교는 우리 교회 이중운 원로목사가 담당 한다.

성도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엘리베이터
이렇게 사용합시다!

성도 여러분!
주일 1·2·3부 예배 전후,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합시다.

목사님, 궁금해요!

이중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34]

(문 30) 창49:10에서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답) : 창49:8-12은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으로 주는 예언의 말씀 중 유다에게 해당된 말씀입니다. 이 지파는 '네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웁긴 것을 찢고 올라간 자'로 묘사하여 유다 족속은 전쟁을 좋아하는 백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다른 민족들까지도 왕으로 다스릴 것을 강조하였습니다.(10)

중요한 것은 왕으로 다스린다는 것과 그 다스림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흠(卍)과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실로는 누구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아람어 탈굴역에서는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에게 왕국이 속하리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실로를 메시아의 명칭으로 동일시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란' 누구를 말하는 지 명확한 해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B.C 3세기에 번역된 70인역에서는 실로에 다른 모음을 붙여 셀로(One to Whom)로 읽었고 2세기의 Aquila와 Symmachus역에서는 '그를 위하여 보관하였으니'로 라틴어 Vulgate역에서는 '보내심을 받을 분'으로 읽었습니다.

'에브라임의 실로' (수8:1, 8, 9, 10) 또는 '유다가 실로에 이르기까지'처럼 지명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고 혹은 유다가 적들을 정복하여 안전하게 될 때까지 흠(왕권)이 떠나지 않는다는 설도 있으나 본문의 뜻과 달라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실로는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보고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유다의 왕권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실로의 뜻을 따라 안식을 주시는 자, 중보자, 안정을 주시는 분, 그(유다)의 자손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내가 앞드러뜨리고 앞드러뜨리고 앞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있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겔 21:27) 에스겔은 심판의 개념을 흠을 쥔 자와 연결시키고 있어 창 49:10을 연상케 합니다. 즉 메시아가 오시면 이 같은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주 계속)

2012 특별기고

2012, 새 길을 향해 달려가는...

2012년, 새해를 맞아 순례자는 이종윤 원로 목사님께 한국교회에 올 한 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 새 국면을 맞은 북한을 바라보는 크리스천의 올바른 시각과 안보관 등을 들어보았다. 이 기사는 2주에 걸쳐 게재 된다. (편집자 주)

우리는 새해를 맞으며 이사가 선지자가 외쳤듯이 옛적 일을 모두 잊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새 길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달려가야 할 목표와 비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2012년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보여주시는 비전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특히 2013년에는 WCC(세계교회협의회), 2014년에는 WEA(세계복음주의연맹)라는 기독교에서 가장 큰 두 국제기구가 한국에서 총회를 개최합니다. 한국교회는 이 일을 계기로 세계 기독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복음화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WCC와 WEA는 서로 대립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나 두 기구 모두 선교와 연합을 주장하는 기구로서 서로 대립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두 기구의 총회를 유치하면서 장소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는 '교회의 천국화'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지옥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교회들이 제각기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니, '한국교회에는 교황이 5만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세번째는 '문화의 기독교화'입니다. 작금의 교회는 세상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리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세상에 끌려다니며 세속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칼빈의 신학과 생활과 예배와 개혁은 한국교회에 절실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성경에서 너무 멀어졌고, 많은 교회들이 신학의 본질을 놓치고 있으며 예배에도 비성경적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규모가 커지다 보니 현금의 상당 부분도 유지비로 나가고, 성장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윤리적·도덕적 문제도 너무 산적해 있습니다.

“
누가 아니라
바로 내가
정직한 회개를 하므로
한국교회를
살려야 합니다
”

올해는 장로교 총회 설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장로교는 100주년이라는 숫자보다 먼저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 중 75%가 장로교회인데 이것이 250여 교단으로 갈라졌습니다. 연합이 급선무입니다. 서로 신학이 다를 수 있어도 연합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봐도 하나님은 삼위시면서 일체이시고, 예수님도 신이시면서 인간이시라는

것은 오묘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칼빈도 예배와 성례식이 같으면 하나라고 했습니다. 연합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둘째는 예수님의 소원이고, 셋째는 성령께서 이루시어 주실 것이므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또 한 가지 한국교회에 우려스러운 일은 한기총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는 일제 강점기에도 칼날같이 무서운 핍박을 이겼고, 공산주의 폭정에도 굴하지 않고 순교자를 배출했습니다. 그런 한국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 위기의 핵심은 죄이며, 그 죄는 돈과 공명심 때문입



니다. 일각에서는 한기총을 차라리 해체하자는 소리까지 하지만 나라가 부패했다고 해체할 수 없는 것처럼 한기총은 교회가 지키고 사랑해야 할 기구입니다. 모든 것이 커지면 문제가 생기는 법입니다. 교회도 커지다 보니 허세를 부리고 세속적이고 향락을 취한 위선적 지도자,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야욕에 젖은 지도자들이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아무도 십자가를 지겠다는 이는 없고 면류관만 쓰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몇 천 명을 거느리는 추기경 같은 목사들과 수십만을 대표한다는 교황 같은 위세를 부리는 목사들이 한국교회를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처럼 타락하게 하고 있습니다. 불신사회에 덕을 세우기는 커녕 비난과 조소의 대상이 된 오늘의 한국교회를 누가 구해낼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국교회가 다 썩은 것은 아닙니다. 희생과 겸손의 허리띠를 띠고 진정한 종의 모습으로 목회하시는 목회자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연합체의 지도자들이 편법이 아닌 진리의 정도를 걸으면 존경과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아니라 바로 내가 정직한 회개를 하므로 한국교회를 살려야 합니다.

(다음주에 계속)

2012년 교육부서 겨울 성경학교 · 수련회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 -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부서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유아부	2. 26 (주)~28 (화)	서울교회	나는 빛! 나는 소금!	최인애 전도사
유치부	2. 26 (주)~28 (화)	서울교회	착한 행실을 하나님께!	박다형 전도사
유년부	2. 26 (주)~28 (화)	서울교회	나의 삶이 주님께 영광!	김안성 목사
초등부	2. 26 (주)~28 (화)	서울교회	하나님의 빛!	이신우 전도사
중등부	2. 20 (월)~21 (화)	아가페타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박노철 목사 / 노정호 목사
고등부	1. 27 (금)~1.28 (토)	아가페타운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박노철 목사 / 이종진 목사
사랑부	2.12 (주일)	서울교회	소금과 빛!	한상은 목사
대학부	2.2 (목)~4 (토)	아가페타운	선택과 집중&변화와 유지-알파라이징하라	박노철 목사 / 허승일 전도사
청년1부	2.29 (수)~3.1 (목)	아가페타운	하나님의 비전으로 부흥하는 청년	박노철 목사 / 박진아 목사
청년2부	3.1 (목)~3.3 (토)	아가페타운	세상의 소금과 빛!	박노철 목사 / 오세광 목사
디아스포라	1.27 (금)~28 (토)	아가페타운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디아스포라부	박노철 목사 / 박광일 목사
에바다	2.25 (토)	서울교회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임규현 목사
신혼가정부	2.11 (토)	서울교회	소금과 빛	한상은 목사
영어예배부	2.24 (금)~25 (토)	아가페타운	ppp-Praise, pray, play	박노철 목사 / 스티븐 마티놀리치 목사
레인보우영아교실	2.3(금)~4(토)	통일교육원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자!	박광일 목사

강남노회 여전도회임원단 세미나

1월 26일(목), 오전 10시 101호

서울 강남노회 제 25회 여전도회 임원단 세미나가 1월 26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교회 웨스트 민스터 홀에서 열린다.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다”(사 58:9)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 개최예배 설교에 박노철 목사가 선다. 여전도회 임원들은 전원 참석하여야 한다.

시온 찬양대 피아노반주자 임명 박승기 선생

시온찬양대 피아노 반주자로 수고하던 서유진 선생이 유학준비로 사임하고 박승기 선생이 당회에서 임명되었다. 박승기 선생은 명지대 음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하였으며 현재 국민대에서 음악 교육을 전공하고 있다. 가브리엘찬양대의 임시 반주자, 고등부 반주자로 봉사하기도 하였다.

겨울수련회 초대인 글
-디아스포라부

북한 북음화의 초석



김용환 집사 (디아스포라부 부장)

살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디아스포라부’라는 주제로 1월 27일(금)과 28일(토), 이틀 동안 아가 페타운에서 디아스포라부 겨울수련회가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 서울교회 ‘디아스포라’부는 복음의 불모지, 인권의 사각지대인 북한체제를 탈출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신앙공동체입니다. 어제까지 하나님을 모른 채, 생존의 문턱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쳐야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주님의 몸된 서울 교회에서 미래 북한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 겨울수련회도 ‘디아스포라’부 성도들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뜨거운 기도의 자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박광일 목사님의 말씀과 북한선교 전문사역자이신 김성호 목사님의 간증, 탈북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가 북한 북음화에 이바지하게 될 초석을 다지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고등부가 오는 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아가 페타운에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이라는 주제로 겨울수련회를 떠납니다. 신앙의 바른 가치관을 세워가는 중요한 시기인 저희 고등부 학생들에게 이번 수련회가 더욱 뜻 깊고 소중한 시간일 것입니다.

비록 1박2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수련회를 통해 주님께서 저희를 향하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주님의 빛과 소금이라는 위대하신 계획을 깨닫고 체험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또한 과중한 학업과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 힘들어 하는 고등학생의 때에 의지할 것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공부의 목적이 자신의 야망이나 욕심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임을 알고, 그것을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희를 향하신 이종진 목사님의 꿀송이와 같은 은혜로운 말씀은 점점 타락하고 범람하는 세상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맛을 내는 빛과 소금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며, 학업과 치열한 세상 속에서 지쳐있는 저희의 심령을 단비처럼 촉촉이 적셔 주실 것입니다.

겨울수련회 초대인 글 - 고등부



황신혜 (고등부 회장)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기도와 봉사로 헌신하시고 준비하신 수련회가 안전하고 은혜롭게 끝나치며, 고등부 학생들이 많은 수가 참석하여 많은 교제를 나누며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히 학부모님들은 참석을 망설이는 학생들을 위해 많은 격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히 학부모님들은 참석을 망설이는 학생들을 위해 많은 격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록물 제출 공고

교회는 지난해 작성된 교회 각 부서들의 각종 기록물들을 제출받습니다. 당회 산하기관과 각 위원회, 교구, 남녀선교회, 찬양대, 교회학교 등 모든 부서의 서기나 기록 담당자는 지난 한 해 동안 기록한 각종 기록물 (각종 일지 및 회의록, 출석부, 보고서, 주보, 인쇄물, 주요 사진 등)을 1월 말까지 순례자실(704호)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민철 집사, 최영철 집사, 허숙 권사)

아울러 2010년 이전 과거 기록물도 보관중인 것이 있으면 반드시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컴퓨터 파일인 경우엔 서울교회 홈페이지내에 "기록물 보관실"로 들어오셔서 파일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제목에는 부서명과 기록물의 이름, 담당자명을 써 주시면 됩니다. (예: 초등부 회의록 홍길동) 제출해주시는 자료는 교회내 역사자료실에서 정리해 영구 보존할 예정입니다.



이브라함 남선교회가 제출한 기록물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26일(목) 장로교 표준주석 편찬 및 검독위원회를 소집한다. 27일(금) 장로교 100주년 사진전시회 준비위원회를 소집한다. 한장총 운영위, 임시총회에 참여한다.
- 이사: 12교구 박두영 장로 전행정자선사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3477
- 주간식당봉사: 제1권사회(1.22) 제2권사회(1.29)
- 금주의식사: 교회 제공

지난 주 우리 교회는...



지난 주 찬양예배 후에 개최된 비전 2020 후원자의 밤 행사와 찬양예배 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린 참석자들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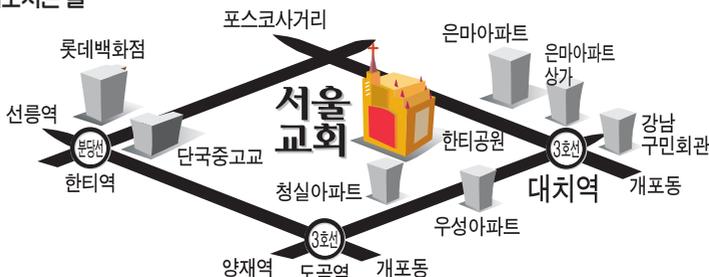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설날에 친지를 만나며 여행하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2. 1월 24일(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있는 성경통독 사경회를 통해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3. 1월 31일(화) 오후 7시에 있는 한국장로교총회 설립 100주년 목사/장로 기도회를 통해 한교단 다체제의 비전이 이뤄지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 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2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 교회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